우리는 왜 엉뚱한 문제를 산업적 수단으로 해결하려 하는가

Eliakim M. Kambale

FF-0001 · v1 · ko · 2026-11-17

번역 원문 en v1

https://contributions-ledger.org/freeforms/ff-0001/v1/ko/

우리는 왜 과거의 실패를 상대로 그렇게 자주 전쟁을 벌일까? 때로는 그 이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말이다. 나는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왔다. 남에게 보이고, 찬사를 받고, 존중받는 것일까? 아니면 일을 성사시킬 만큼 충분한 힘을 모으는 것일까? 야망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 일부는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에 답하려는 시도인지도 모르겠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일, 눈에 띄지 않았던 일, 자신에게는 특별히 흥미롭거나 매력적인 구석이 없다고 느끼게 된 일 같은 것들 말이다.

사람들은 때로 누군가가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위대한 것을 만든다. 자신을 믿지 않았던 부모, 능력을 깎아내렸던 교사, 자신을 진지하게 보지 않았던 여자친구에게 말이다. 혹은 남성 교수에게 능력을 폄하당한 여성이 페미니즘에 몰두하고, 여성도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 주려고 자신도 교수가 되려 한다. 그 성취에는 그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당신은 나를 잘못 봤어." 남성에게도 해당한다. 비싼 차를 사서 자신을 거절했던 여성이 사는 동네를 돌아다니는 남자, 혹은 옛 연인들이 보기를 바라며 새 연애를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남자가 있다. 여러 해가 지나도 그 사람의 판단이 평생의 노력을 바칠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함정이 있다. 고등학교 때 자신이 투명인간 같다고 느꼈던 젊은 너드를 떠올려 보자. 그는 죽도록 일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다.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만, 그 관심 중 일부는 그의 지위나 돈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에게서 온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얻은 바로 그 것들이, 누군가 자신 자체를 원하는지 알기 어렵게 만든다. 돈과 권력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지만, 누군가 자신을 못 본 척할 때 느끼는 감정까지 바꾸지는 못할 수 있다. 그는 세상의 거의 모든 기준에서 성공하고도 자신을 달리게 한 최초의 질문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

젠슨 황은 대학에서 아내 로리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관한 일화를 즐겨 이야기한다. 몇 달 동안 함께 과제를 하고 나서야 데이트를 신청할 용기를 냈다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에서 내 눈길을 끄는 것은 그때 이루어진 교환이다. 그는 그녀의 관심을 얻으려고 자원을 제공했고, 그것은 통했다. 어쩌면 다른 방식을 끝내 배우지 못한 채, 로리뿐 아니라 아마 다른 여성들에게서도 그 관심을 확보하려고 더 큰 자원과 더 많은 권력을 계속 쌓았는지도 모른다. 모든 남성이 성적 접근을 위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연애에 능숙한 남자라면 몇 마디 농담과 말솜씨, 알맞은 분위기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데이트를 잡았을지도 모른다. 여기서의 질문은 황이 자신을 빛나게 해 주는 외부의 무엇 없이도 이목을 끄는 법을 배웠느냐는 것이다. 대학 시절 그것은 함께 과제를

하며 로리에게 약속했던 전 과목 A의 성적이었다. 나중에는 돈과 명성, CEO라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주는 영향력과 권력이 되었다. 그의 자원은 늘었지만 애정을 구하는 방식은 한 번이라도 달라졌을까?

누군가에게 다가가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두려울 만큼 강한 사람이 되는 편이 더 상상하기 쉬운지도 모른다. 혹은 그녀의 애정이 다른 욕망과 뒤엉켰는지도 모른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다는 욕망 말이다. 그러면 한 사람의 관심이 훨씬 더 큰 설욕의 무게를 짊어진다. 원하는 사람이 생기면 만족할까? 아니면 여전히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할까?

밖에서 보면 황의 보도된 불륜과 CEO 자리의 상실은 33년간 쌓아 온 모든 것을 어리석게 위험에 빠뜨린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옛 상처가 그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었고, 아내를 만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몰랐을 수도 있다. 따라서 조금만 애정과 관심을 주는 여성이라면 누구든 그 권력 아래의 젊은 너드에게 닿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쁜" 결정을 내렸다거나 위험을 잘못 계산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의 무의식은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었을 수도 있음을 잊지 말자. 바로 자신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다. 그에게 그것은 보잘것없는 보상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무기를 손에 넣었던 본래 목적에 맞게 마침내 사용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을 그 자체를 위해 원한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과거의 실패와 싸우는 전쟁 기계였고, 승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희생해도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때로 부엌칼 하나로 끝낼 수도 있었던 전쟁을 위해 군대를 만든다. 누군가는 남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수년 동안 부를 쌓지만, 여성을 유혹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려움을 더 직접적으로 해결했을 수도 있다. 여성의 관심을 얻지 못한 남자가 군에 들어가 혹독한 훈련을 받고, 정복자가 되거나 악당을 무찌를 힘을 얻는 TV 드라마의 줄거리가 떠오른다. 그는 이제야 그녀가 자신을 다르게 보기를 기대하며 돌아온다. 재능을 하나 청할 수 있다면 왜 군대를 무찌르거나 결투에서 이길 힘을 청할까? 왜 처음부터 말을 걸고 싶었던 여자를 사로잡는 재능이나, 아예 그녀의 관심이 필요 없어지는 능력을 청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으려고 놀라운 일을 해내고 세상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늘 놀란다. 책임을 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떠오른다. 여성의 안전을 추구하면서 자신과 어린 여자아이들이 위험을 알아보고 피하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남성에게 동의와 경계 존중을 재교육하고 남자아이들에게 여성을 절대 해치지 말라고 주입하려는 사람들 말이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역량 강화는 어디서든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잠재적 가해자들의 교육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에 운 좋게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 제도를 완벽하게 다듬을 수는 있어도 모든 남자아이가 제대로 포맷된 채 자라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단 한 명만 결함을 지닌 채 나오더라도 위험은 여전히 밖에 있다.

더 간단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은 인간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어디든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그것이 있으면 남성 한 세대 전체를 다시 포맷하는 거대한 정부 없이도 위험을 알아보고 피할 수 있다.

이야기를 벗어나려는 것은 아니지만, 왜 당신의 안전이 사회 전체가 그것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궁극적 선이어야 할까?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모든 사람을 빚어낼 권리는 어디서 오는가? 자신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주제넘고 독재적이며 자기중심적이지 않은가? 나는 그 안에서 공주나 여신 같은 사고방식, 일종의 유아론을 본다.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두가 나와 나의 필요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이 무책임하게 아기를 남겨 놓고 떠났다고 비난하는 싱글맘들에게서도 같은 양상을 본다. 일부는 더 믿을 만한 상대를 골랐거나 결혼 전까지 다리를 오므리고 있을 수도 있었다. 내게 이것은 여성을 유혹하는 법을 배우는 대신 그녀의 관심을 기대하며 세상을 정복하는 남자와 닮았다. 결국 엉뚱한 문제를 부지런히 풀고 있는 셈이다.

남성들은 흔히 실용적인 해결책을 택한다. 거짓 고발을 피하려고 문을 닫은 사무실에서 여성 동료와 이야기하거나, 여성 동료와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거나, 여성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상황 등을 피한다. 어떤 여성도 무고한 남성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못하도록 여성 한 세대 전체를 다시 포맷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는 남성이 더 실용적이다. 그런데 여성을 유혹하는 일에서는 그 실용성을 잊어버린다. 왜일까?

어쩌면 여성을 유혹하는 일이 자신을 증명하고 설욕하는 일과 뒤엉켰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의 관심을 통해 자신에 관한 무언가에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한다. 자신은 매력적인 사람이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틀렸으며, 다시는 하찮은 존재가 되지 않으리라는 결론 말이다. 자신을 보호할 때는 제약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의 무관심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처럼 느껴지므로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플러팅을 배워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거절당할 가능성에 노출된다. 돈과 지위, 권력을 쌓는 일은 언젠가 거절할 수 없는 존재가 되리라는 환상을 제공한다.

자원을 쌓는 일 자체에도 익숙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그는 일하고 경쟁하고 축적하는 법을 안다. 그런 보호 없이 누군가에게 다가가려면 다른 능력이 필요하며, 어쩌면 평생 피해 온 능력일지도 모른다. 그의 추론은 한 번도 검토하지 않은 감정적 목표를 섬기면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비범한 능력을 엉뚱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아부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마법의 힘을 찾는 평범한 남자로 돌아가 보자. 왜 다시는 거절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빌고, 거절에 면역이 생기게 해 달라고 빌지는 않을까? 첫 번째 소원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대방의 반응에 짐을 지운다. 그의 안정감은 그녀가 계속 자신을 원하고, 다른 사람이 그의 자기가치감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데 달려 있다. 아무리 강해져도 그녀는 다른 사람을 택하거나 그저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가 얻으려는 보호는 결코 완전히 확보될 수 없다.

거절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편이 더 유용한 힘을 얻는 일 같다. 면역이라는 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무언가를 소중히 여길 여지가 남는 상태다. 거절은 여전히 아플 수 있다. 특히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렇다. 그러나 실망이 수년간의 성취로 뒤집어야 하는 판결이 될 필요는 없다. 거절 하나가 자신에 관해 믿는 모든 것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망설일 이유도 줄어든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관심을 표현하고, 제안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이 어떤 문은 열어 줄 수도 있다. 열리지 않는 문이 당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거나 남은 인생이 부족

하다고 느끼게 할 필요는 없다. 마법의 힘을 찾는 평범한 남자는 특별해지기 전에도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다. 그 뒤에는 돌아갈 자신의 삶이 있을 것이다.

세 가지 마음가짐이 유용해 보인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감정이 바뀔 시간을 주어 거절의 아픔을 달랠 수 있다. "거절은 방향 전환이다"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다른 문을 계속 두드릴 의욕을 되살릴 수 있다.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수용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결과가 무엇이든 당신은 계속 살아간다. 지금까지도 이것 없이 살아왔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것 없이 살 수 있다. 그래도 원할 수 있고 얻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 그것 없이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듣고 싶지 않았던 답까지 받아들일 여유를 준다. 이런 의미에서 치유란 옛 감정을 다시 마주하더라도 그것과 싸우기 위한 또 다른 원정을 조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어떤 전쟁은 물질적인 삼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내면에서 치러야 한다. 나는 예수의 말을 떠올린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의 세계에 속한다." 그리고 융의 생각을 옮긴 익숙한 표현도 떠올린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이끌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 충동의 대부분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다. 감정적인 반응이다. 누군가 당신을 거절하거나 모욕하거나 조금 관심을 주면, 갑자기 그 감정을 중심으로 삶을 꾸릴 준비가 된다. 프랑클의 정신에 따른 노력은 자극과 자신의 반응 사이에 조금 거리를 두어 어떤 반응이 적절한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군대를 만들기 전에, 어쩌면 그 감정이 애초에 전쟁을 요구하는지부터 물어야 할 것이다.

인용

Eliakim M. Kambale. (2026-11-17). 우리는 왜 엉뚱한 문제를 산업적 수단으로 해결하려 하는가. Freeforms, FF-0001, 버전 1 (ko). https://contributions-ledger.org/freeforms/ff-0001/v1/ko/